

## 한·중 사범대학의 교육과정과 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박성일<sup>1</sup>, 이재철<sup>2</sup>, 박정환<sup>3\*</sup>

<sup>1</sup>호남사범대학교 교육학과, <sup>2</sup>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sup>3</sup>제주대학교 교육학과

### A Comparative Study for University of Teacher Education Curriculum and Reform between China and Korea

Sung-Il Park<sup>1</sup>, Jae-Cheol Lee<sup>2</sup>, Jung-Hwan Park<sup>3\*</sup>

<sup>1</sup>Dept. of Education, Hunan Normal University,

<sup>2</sup>Dept.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sup>3</sup>Dept. of Education, Jej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한·중 사범대학들의 교육과정을 비교하고, 개혁동향을 고찰하였다. 문헌분석의 방법으로 4개 대학(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 호남사범대학교, 연변대학교)의 요람, 연구논문, 보고서들을 참고하여 세부영역별로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중 양국은 모두 목적지향형의 교원양성방식을 취하며, 기본적인 편성·운영 체제가 유사했지만, 중국의 경우 학점이수와 과목선택권 측면에서 폐쇄적인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한, 모두 교육학과 교육실습에 해당하는 학점배분이 부족하여 향후 예비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이의 증치가 필요했고, 학생들의 교육과정 개혁요구를 적시에 수용할 수 있는 자체적인 상설기구의 설립이 필요했다. 양국 사범대학들의 개혁은 교육과정의 문제를 양적인 문제가 아닌 질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학생들의 자주적인 발전과 평생학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양국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개정에 효과적인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teacher education curriculum and reform tendency between China and Korea. This study used literature analysis of various studies, catalogs, documents of education universities in China and Kore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Some common features in the teacher education curriculum were observed, such as the purposes of education, constituent area of the curriculum, and subjects, such as pedagogy and practice teaching. Other differences included that China requires more credits for graduation than Korea, but the elective subjects are assigned fewer credits. In both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relevant subjects (pedagogy, practice teaching) for the specialty of a preliminary teacher and establish a permanent system for the curriculum needs of students. In terms of reform tendency, both countries should change the training concept and teacher education philosophy, mainly on enhancing quality-oriented education, emphasizing the students' sustainable self development ability, as well as attaching importance to concept of lifelong education.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be helpful in improving the teacher education curriculum in China and Korea.

**Key Words** : Curriculum reform tendency, Teacher education curriculum

### 1. 서론

시대의 진보에 따른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교사의 자질향상에 대한 요구로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훌륭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사범대학의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준거로 작용되고 있다. 현재 모든 나라에서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을 교육 개혁의 중요한 화두로 삼고 있고, 전문적인 교사양성을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재검토와 교육과정 개혁이 필요

\*Corresponding Author : Jung-Hwan Park(Jeju Univ.)

Tel: +82-10-9843-2620 email: edu114@jejunu.ac.kr

Received March 4, 2014

Revised (1st June 10, 2014, 2nd June 24, 2014)

Accepted July 10, 2014

하다는 공통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1].

교사양성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작용하는 요소들로 넓게는 국가의 교육정책, 행정기구, 교육시설 등 교사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 환경에서부터, 좁게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각 교과목의 수업에 이르기까지 그 수준과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2]. 그러나 관련 요소들의 대부분은 교육과정 관련요인으로 귀납되고 반영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예비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범대학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개혁을 통해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3].

그동안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일반대학과 다른 사범대학의 특성을 일차적으로 논의하며,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시사점을 얻으려는 노력들이 주를 이루었다[4-6]. 이러한 연구들은 교사양성의 전반적인 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국가단위의 제도와 정책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여 실제적인 현장적용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왔다[5]. 또한 일련의 연구들은 미국과 핀란드 등 서구유럽의 사례에만 국한되어 있어 문화적 수용성이 떨어졌다[5,6].

우리나라와 역사가 비슷하고, 교육사적인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아 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중국의 사례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다[7]. 무엇보다 현재 국제학업성취도(PISA, TIMSS 등)평가에서 줄곧 상위의 결과를 나타내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주도로 교육의 전반이 운영되어 상당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점에서도 공통된 점이 많다. 이에 양국의 교육전반을 비교하는 연구는 가치롭다 할 수 있다[8].

역사적으로 19세기 말부터 본격화된 한·중의 근대 대학교육은 학문의 성격과 가치관이 달랐던 서양의 교육제도를 모방하면서 첫걸음을 내디뎠고[7], 교사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사범대학 역시 이때부터 태동하여 발전을 거듭해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 또한 격동의 근·현대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뒤쳐졌던 경제발전을 단기간 내에 이뤄내고자 교육의 효율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양적성장에 치우쳤던 측면에서도 유사점이 많다. 이는 최근 양국 모두가 고심하는 학습자의 흥미유발과 개별화 및 창의성 개발 등과 같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조화의 문제들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마디로 한국과 중국은 지금까지의 수준이 아닌 OECD 선진국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교육방식과 제도들을 마련해야 하는 공통된 숙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

서 현재 양국의 사범대학은 전문적인 교사양성이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의 핵심역세이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아래,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활발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9].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한·중 사범대학의 교육과정과 개혁동향을 비교하는 것은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교사교육을 모색함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 사범대학의 교육과정과 개혁동향을 살펴보고, 사범대학 교육과정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한·중 사범대학 교육과정상에 나타나는 특징과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한·중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개혁동향은 어떠한가?

## 2. 연구의 방법

### 2.1 연구의 대상과 내용

양국은 동일한 단선형 학제(6·3·3·4)를 보유하고 있으나 교사양성 체제에 있어서는 상이한 부분이 있다. 한국은 유아 및 초·중등 교사 모두가 종합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배출되고 있는데 비해, 중국은 부분적인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중등교사만이 종합대학의 사범대학에서 양성되고 있다[10]. 따라서 양국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을 형평성 있게 비교하기 위한 동질성 확보의 측면에서 중등교사만을 양성하는 사범대학의 학부과정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양국에서 교원양성과 현직교사의 재교육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목적 대학의 성격을 지닌 한국교원대학교와 호남사범대학을 선정했고, 종합대학 안에서 사범대학을 단과대학으로 운영하며, 대학원과정을 통해 교사재교육에도 공헌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연변대학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중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호남사범대학과 연변대학교를 선정한 이유는 먼저, 이 두 대학이 규모면이나 내용면에서 중국의 교사양성 체제와 과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며, 위에서 밝힌 한국의 연구대상과 그 특성상 동질성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두 대학은 지

난 수년간 한국교원대학교와 자매결연 및 공동연구 등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본 연구에 필요한 맥락적인 상황 이해와 면담자료 및 기타 정보수집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타당한 연구내용을 선정하기 위해 사범대학 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문헌연구를 1차적으로 실시하였다. 각 대학들은 교육과정상에, 사범대학을 교사의 기본적 자질을 키워주는 하나의 장(場)으로 인식하고,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을 크게 지식교육의 심화, 전인교육의 충실, 교육자로서의 자질 함양이라는 3가지 원천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었다[11-14]. 이러한 접근들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구체적인 준거이자 논리의 출발점으로 작용한다[15].

또한, 양국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구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다음 6가지의 구성원리들이 공통적으로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전인교육이라는 이념에 적합하도록 학부교육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학과목을 제시한다. 둘째, 교육과정은 전공·교양·자유선택과정의 3요소로 구성하며, 일정한 원칙하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 교양과정은 균형잡힌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필수과정의 제시가 필요하다. 넷째, 전공과정은 해당분야의 심도 있는 내용을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학부수준에서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선택 과정은 개인의 흥미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교육과정은 학생과 교수의 협력체제 하에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도울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3가지 원천과 구성원리는 교육과정 문서상에서 교육목적과 편성·운영체제, 운영과정과 교과목의 구성으로 구체화되어 실현된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주목하여 Table 1과 같이 연구내용과 비교대상을 설정하였다.

[Table 1] Contents of comparative study

| Field                               | Detail contents  |
|-------------------------------------|--|
| purpose of curriculum               | · orientation of contents & degree of concreteness   |
| arrangement operation of curriculum | · division of subject<br>· completion unit & credit of subject<br>· formation of curriculum<br>· curriculum commission           |
| composition areal curriculum        | · general education curriculum<br>· major education curriculum<br>· subject pedagogy<br>· general pedagogy<br>· student teaching |

## 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양국 4개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을 비교하기 위해 각 대학의 요람과 교육과정 자료 및 관련규정을 수집·분석하였고, 개혁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양국 정부의 발전방안계획서와 관련 세미나 자료들을 수집·분석하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양국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계된 몇 가지 이슈들로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제작하고, 각 대학의 교육과정 분야를 담당하는 교수들(한국 2명, 중국 2명)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은 1차적으로 충실히 전사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 내용들에 대해 재차 유선전화 등으로 되묻는 과정을 통해 모호함을 보완한 후, 유사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유목화를 통해, 맥락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인 내용은 양국 전문가집단(교육학 박사학위를 소지자 한국 4명, 중국 2명)의 검토를 거쳐 진술하였다.

## 3. 양국 사범대학 교육과정의 비교

### 3.1 교육과정 목적상의 비교

양국의 사범대학은 교육목적을 크게 교육, 연구, 봉사의 3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구체적인 교육목표로 교육부분에서는 우수한 중등교사, 교육전문가, 교육인재 등으로 우수교사양성에 대해 유사한 기술을 하였고, 연구부분으로는 교과 및 교육학 관련 학문의 창의적 연구, 교육이론의 정립과 발전, 창의적 교육과정의 연구와 실천을 피력하고 있으며, 봉사부분으로는 교육문화와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 국가와 경제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었다[11-14].

한국은 중국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기술을 통해 목표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령 한국은 교육면에서 ‘우수한 교원 및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것’을, 연구면에서 ‘교육이론의 정립과 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것’을, 봉사면에서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반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었지만, 중국은 ‘교육인재의 양성과 국가와 지방의 경제건설 및 사회발전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으로 통합하여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교육과정분야 전공으로 연변대학교에 재직하며, 한·중 사범대 모두에서 재직할 경험을 갖고 있는 김00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연변대학교 교육학과 김00교수

- 중국은 중등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범계열의 전공이 비슷한 학문계열의 비사범전공과 같은 학과로 묶여 있습니다. 교육과정상의 교과목 또한 여러 단과대학에 걸쳐 개설되고 있기에 사범대학의 교육목표가 독립적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범대학이 일반대학과 통폐합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고, 교사양성과 관련해서는 각 전공의 세부교육목표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중략)

3.2 교육과정 편성·운영상의 비교

양국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체제는 구체적으로 앞서 추출했던 연구내용상의 교과목의 구분, 교과이수단위 및 학점, 편제, 교육과정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살펴해보았다[11-14].

첫 번째로 양국 사범대학의 교과목들을 살펴보면, 모두 3가지 영역(교양·전공·자유선택)으로 구분이 가능했다. 부분적으로 명칭의 차이는 있지만 Table 2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Table 2] Comparison of subject name

| Classificati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Hunam Normal University  | Yanbian University                               |
|------------------------------|--|--|--------------------------|--|
|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 cultural subjects (requisite /selection) | cultural subjects (requisite /selection) | commonly requires course | general education course (corequisite/selection) |
| major education curriculum   | subject pedagogy education               | pedagogy subject                         | major requisite subject  | department basics course                         |
|                              | subject contents teaching                | subject pedagogy education               | major selection subject  | major requisite course                           |
|                              | profession subjects                      | subject contents                         | major deepening course   | major selective course                           |
|                              |  | practice teaching                        |                          | practice teaching course                         |
| selection curriculum         | general selective subjects               | selective subject                        | selective subject        |  |

두 번째로 양국은 교육과정 이수에 있어 모두가 학점 이수제를 통한 졸업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각 대학마다 규정하는 이수단위는 조금씩의 차이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시수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4개 대학의 교과이수단위는 Table 3과 같이 교과목과 실험·실습·실기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Table 3] Comparison of subject complete unit

| Classificati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Hunam Normal University | Yanbian University   |
|---------------------------------|---------------------------|--|-------------------------|--|
| subject complete unit           | 15hour/1credit            | 15hour/1credit                         | 17hour/1credit          | 16hour/1credit   |
| experiment practice performance | 30hour/1credit            | 30hour/1credit                         | 34hour/1credit          | 1~5week/1credit<br>6~10week/2credit<br>10week over/3credit |

세 번째로 양국의 사범대학은 교육과정 편제에 있어 3가지 영역(교양·전공·자유선택)에서 일정량의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졸업소요학점을 대학별로 비교하면 연변대학과 한국교원대학교, 호남사범대학은 150~170점 사이로 정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교만이 130점의 졸업소요학점으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적으로 중국 사범대학들의 졸업소요학점이 한국보다 많았다. 4개 대학의 교육과정 편제와 이수학점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Table 4] Comparison of curriculum formation & course credits

| classificati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Hunam Normal University | Yanbian University |        |
|-------------------------------|-----------------------------------|--|-------------------------|--------------------|--------|
| cultural curriculum (credit)  | requisite                         | 24                                     | 6                       | 35/56              | 43/38  |
|                               | selection                         | 12                                     | 15                      |                    | 12/10  |
| major curriculum (credit)     | requisite                         | 27                                     | 44                      | 50/70              | 89/100 |
|                               | selection                         | 27                                     | 46                      | 24                 | 16/12  |
| selection curriculum (credit) |                                   | 40                                     | 46                      | 16                 |        |
| total                         | 130                               | 150                                    | 150/166                 | 160/170            |        |
| method of organizing          | dual distribution complete method |  |                         |                    |        |

교육과정의 구성면에서 볼 때, 양국의 전반적인 체제는 비슷하나 연변대학은 자유선택과정을, 호남사범대학은 교양선택과정을 개설하지 않고 있다. 세부적으로 필수/선택과목의 비율에 있어 한국의 경우 대략 60%가량을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중국의 경우는 20%내외를 운영하며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필수과목의 비중이 현저히 높았다. 이는 양국의 교육과정 편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양국의 사범대학에서 교육과정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권00교수

- 예비교사들에게 필수과목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각 전공분야의 지적 탁월성을 갖추는데 나름대로 도움을 주지만 교육적 안목형성과 창의성의 신장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최소한의 필수과목 아래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교육과정 편성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 복수전공 의무화 등으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학습량이 과다하다는 생각입니다. 장차 대학원과정을 통합해 수업연한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중략)

### ○ 호남사범대학교 교육학과 박00교수

- 훌륭한 중등교원 양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공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 후,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은 안목을 기르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 때문에 필수과목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향후, 간학문적인 접근으로 교과목들을 정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인 교수능력이나 실무능력은 현장경험을 통해 길러지므로 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중략)

양국 사범대학 교육과정분야 교수들의 의견처럼 필수과목의 증치를 통해 전공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은 자칫 개인의 적성과 소질 계발을 저해할 수 있다. 향후 지속적인 합의를 통해 교육내용 재구화를 통한 교과목 정련이 필요하고,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수업연한의 개편 없이 필수교과목만을 증치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따름을 알 수 있다.

한국교원대학교의 경우는 설립초기부터 ‘생활관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예비교사들의 바른 인성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2년 동안이나 운영된다. 다른 대학들의 기숙사제도와 비교할 때, 별도의 교육과정이라는 점과 이수제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이 특징이고, 공동체의식과 봉사심 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자체적인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12].

네 번째로, 양국의 사범대학은 모두 양질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해 나름의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다만 그 명칭과 인원구성에 있어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서울대학교는 기초교육위원회(총장이하, 기초교육원장, 교무처장 등으로 구성)에서 기초교양교육의 제정·개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사운영위원회(교무처장, 입학관리본부장, 기초교육부원장 및 학장 등으로 구성)에서 교과과정의 편성·개편·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연구·심의하는 이원체제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교원대학교는 별도의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교육과정의 전반을 논의한다.

중국의 경우, 호남사범대학교는 ‘인재배양방안제정사업소조’라는 기구(부원장, 학과장, 전공주임 등으로 구성)에서 교육과정의 전반을 논의하며, 연변대학교는 ‘교수사업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양국은 공통적으로 교육과정 업무를 학교 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정기구를 통해 편성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습자들의 요구와 의사를 적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시피 했고,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미흡해 보였다. 이러한 부분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의 학과·생활적용 튜터(tutor)와 멘토링(mentoring)제도 등이 적절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 3.3 교육과정 구성내용상의 비교

양국 사범대학의 교양·전공 교육과정의 내용을 필수교과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교양필수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서울대학교는 특징적으로 ‘교육의 이해’라는 과목을 필수로 대학국어·영어, 체육계열, 문학과 예술, 역사와 철학, 사회와 이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한국교원대학교는 사고와 표현, 외국어 듣기·말하기, ICT교육, 시민윤리, 생활체육을 근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 연변대학교는 대학영어·일어·국어, 대학수학·물리·화학, 컴퓨터기초, 대학체육, 군사이론, 진로교육, 모택동사상개론, 등소평이론개론, 법률기초, 마르크스철학, 사상품덕소양, 민족이론과 정책, 당대 세계경제와 정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호남사범대학교는 대학영어·국어, 컴퓨터 기초와 응용, 고등수학, 군사이론, 대학체육, 공익노동, 모택동이론, 등소평이론, 중국근대사강요, 마르크스주의 기본원리, 사상도덕소양과 법률기초, 형세와 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국 사범대학의 교양필수과정은 기초학습기능과 지식에 접근하는 방법을 익히는 간학문적 개론교과목들이 주를 이루었다. 기초학습기능을 익히는 과목에서는 양국 모두 영어 등의 외국어, 모국어의 사고와 표현, 수학,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ICT과목 등을 개설하고 있다.

양국 사범대학의 전공필수 교육과정은 크게 일반교육학, 교과교육학, 교육실습의 3개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일반교육학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9학점을, 한국교원대학교가 12학점을, 호남사범대학교가 7학점을, 연변대학교가 8학점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교과목으로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학, 교육공학, 교육과정학 등을 개설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과교육학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한국교원대학교가 9학점을, 호남사범대학교와 연변대학교가 3학점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과교육과정, 교과교수론, 교과교육론, 교과교재론, 교과교육연구법 등을 개설하고 있으며, 한국에 비해 중국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학점을 적게 배당하고 있었다. 끝으로 교육실습과정은 4개의 대학 모두가 참관실습과 교육실습을 두 차례에 걸쳐 운영하고 있었는데, 호남사범대학의 경우는 기간과 학점 배당에 있어, 타 대학의 평균(4주내외 3학점)에 비해 10주내외 7학점으로 현저히 많았다.

## 4. 양국 사범대학 교육과정의 개혁동향

### 4.1 교육과정 개혁의 기본방향과 정책적 접근

양국의 사범대학 발전방안계획서와 관련 정책세미나 자료들을 검토[16-26]했을 때, 정부 교원양성정책의 변화에 따라 양국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은 크게 3가지의 흐름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고 있었다.

첫째, 교사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현장중심의 실제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양국의 교사교육은 큰 틀에서 볼 때, 시장경제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학마다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대학교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고, 대학교에서는 우수한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의 질을 중요시하고 있다[17]. 종합대학에서 교사교육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중국의 경우도 이러한 움직임으로 최신 교수-학습이론, 교육이론 및 방법에 대한 교과목들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있다.

둘째, 학생들의 자주적인 발전을 중요시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사범대학교들의 대부분이 종합대학에 편입되어 학생들의 절반이 비사범대생이고, 사범대생들의 경우도 졸업 후 절반이 교직에 종사하지 않는다[18]. 종합대학의 경우는 교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여 학생들의 과목선택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자유롭게 학습하여 사회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정책이 자리 잡고 있으나 사범대학교의

경우는 교사교육의 목적 아래, 교육내용의 변화보다는 대학생활의 적응을 돕는 측면이 강하다. 다시 말해, 학습환경과 여건 및 분위기를 개선하여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셋째, 평생학습(life long learning)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의 교사교육은 학부의 졸업과 동시에 학습이 중단됐지만 현재는 교사들의 학력과잉 현상이 심화되면서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보편화되었다[22]. 사범대학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대학교육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실력과 기본 기능을 강화하고, 교원임용 전·후 교육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사범대학생들의 지속적인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때때로 사회적 여건의 제약을 받기도 한다. 즉 사회적 상황은 교육개혁의 전제이자 출발점이고, 교육개혁은 사회적 수요에 부응해야 함이 마땅하다. 양국의 교사교육은 20세기 초부터 진행되어 지금까지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21]. 100여 년간 양국도 세계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교사교육 또한 그러한 우여곡절 속에서 발전해 왔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기초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기초교육을 위한 최대 규모의 교사 양성을 하고 있으며, 현재 기초교육의 수요를 충분히 만족[20]시키고 있다. 한국은 이미 중학교 단계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됐고, 가까운 시일에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양국 교사교육의 문제는 양적인 교사수급이 아닌 교사의 질적 내실화에 관한 문제이다.

양국 정부는 교사교육의 질을 제고시키고자 일련의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교사교육의 개혁과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사교육을 ‘계획적인 양성’에서 ‘시장 수요를 따르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지역 맞춤형 양성방식’으로 대량의 교사를 양성하였지만 90년대 후반부터 교사의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교사교육도 사회의 기타 영역과 마찬가지로 시장경제 방식에 따르게 되었다. 정부와 학교는 훌륭한 교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매진하게 되었다.

둘째, 양국 모두 교사의 고학력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24]. 중국은 중등사범학교를 철폐함으로써 교사교육의 중심을 점차

사범대학교로 옮겨가고 있으며, 사범대학들도 종합대학으로 통합시키고 있다. 현재 중국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대부분이 학사학위를, 중학교 교사들은 대부분이 석사학위를 갖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초·중등 교원의 대다수가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 있다.

셋째, 양국은 개방적인 교사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90년대 말부터 '개방적인 교사교육 방식'을 채택하여 사범대학에서 교사교육을 독점하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학문연구 수준이 높은 종합대학들에서 교사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20]. 한국은 사범대학교들이 대부분 종합대학의 계열이나 단과대학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이다. 또한 최근 다양한 인력들이 학교 현장으로 투입되고 있어, 이를 양성하기 위한 한시적인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개설도 이루어지고 있다.

#### 4.2 대학 내의 자구적 노력

양국의 사범대학교들에서 자체적으로 나타나는 교육과정의 개혁방식[19,22]은 상당부분이 유사했다. 그 요점은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과 환경개선을 통해 학생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인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한 목표와 비전의 제시, 다양한 전공 개설과 계열을 뛰어넘는 부전공 및 복수전공제도 도입, 입체적 교육과정 체제, 선택교육과정 확대, 중국의 오위일체 양성 방식과 육면체 교양과목체제 등을 들 수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교양·전공·교육학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있다. 교양교육과정은 주로 문화적 기초지식을 심화시키고, 지식체계를 확장시킨다. 대학어문, 고등수학, 컴퓨터, 대학영어, 철학, 윤리학, 심리학 등 핵심 기초 교과목을 개설하고, 문학, 역사, 철학, 정치, 경제, 법률, 음악, 체육, 미술, 교육심리, 자연과학, 기술응용 등 일반 교양과목도 개설한다. 전공교육과정은 학과 발전의 논리적 구조와 전공인 양성목표에 근거하여, 교과 구성과 내용을 조정·통합·갱신하여, 전공마다 4-6개의 전공기초 지식을 반영하고 전공의 발전 동향을 알아보는 주요 전공과목들을 개설하고 있다. 교육학 교육과정은 교사의 인성과 교직의 기본 심성을 키우고, 교육능력을 배양하고, 첨단 교육장비를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주요 목표와 내용으로, 교과목들을 통합·조정하여 4년간의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현대 사회의 변화를 폭넓게 반영하는 교양과목들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있다. 크게 6가지 계열(문학·역사·철학계열, 정치·경제·법률계

열, 교육심리학계열, 음악·체육·미술계열, 자연과학계열, 기술응용계열)로 나누고 각 계열의 교과목들을 균형있게 개설하고 있다. 이와 같은 6가지 계열의 교과목들은 사범대학교 학생들이 진인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문화적 환경의 토대를 형성한다. 덧붙여, 양성방식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노력으로 교실수업과 체험·봉사 활동을 결합하고, 실천과 이론, 문화와 전공교육을 결합하는 융합형 인재양성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중 사범대학의 교육과정과 개혁동향을 비교하여 사범대학 교육과정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문헌연구와 전문가 면담을 통해 이를 고찰하였다.

먼저 양국 4개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을 비교한 결과 첫째, 교육목적은 대학의 교육, 연구, 봉사 기능에 따라 기술하고 교육기능은 중등교사 및 교육전문가의 양성을, 연구기능은 교육학 및 교과교육학의 학문연구를, 봉사기능은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과 사회에 기여함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고 있었다. 이는 양국 모두가 공통적으로 명확한 목적형의 인재양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전통적으로 미국 등의 서구에 비해 교사가 되는 자격기준이 엄격하고, 사회적인 인식과 기대가 큰 만큼 양국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교육목적을 제시하고 있었다.

둘째, 양국 4개 사범대학은 모두 교육과정 편성의 큰 틀을 3가지 영역(교양·전공·선택과정)으로 구분하고, 이원배분이수제를 통해 운영하고 있었다. 부분적으로 그 명칭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각 영역의 기능과 목표는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교육학 관련 교과목의 배분정도에 있어 한국이 중국에 비해 확연히 많았다. 또한 4개 대학 모두가 교육학 관련 교과목이 전체 교육과정 중 1/5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양국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향후 교원들이 교육전문가로서 교육 전반에 관해 깊이 이해하고 학습자를 지도하기 위해 교육학 관련 교과목을 보다 많이 이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내용면에서 교육실습의 증치와 실무능력 배양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이를 강조하려면, 교육연한을 늘려 종합적인 전문성 신장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셋째, 졸업에 소요되는 총 이수학점을 비교할 때, 중국은 한국보다 더 많은 학점을 요구하고 있었고, 필수과목의 학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전공영역에서의 수월성 강조와 학생들의 소질계발을 위한 자율선택권이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양국 모두는 학교 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정기구를 통해 학생들의 요구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양국 4개 사범대학의 발전방안계획서와 관련된 세미나 자료 등을 검토했을 때, 공통적으로 교육과정 개혁의 큰 틀을, 교사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실제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자주적인 발전을 중요시하며, 평생학습(life long learning)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사교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잡고,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었다.

양국은 정책적으로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이에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함과 동시에 직무표준을 개발하고, 역량중심으로 평가방법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사범대학 자체적으로는 명확한 목표와 비전의 제시, 다양한 전공개설과 부전공 및 복수전공제도 도입, 입체적 교육과정 체계, 선택교육과정 확대, 중국의 오위일체 양성 방식과 육면체 교양과목체제 등의 노력을 통해 단계 높은 교육과정 상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론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양국 사범대학들의 교육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예비교사교육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향후 사범대학 교육과정의 편성과 개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양국 사범대학의 개혁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큰 틀에서 양국이 추구하는 바를 공감하고,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입장차를 이해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사범대학 중 대표적으로 2개 석만을 선정하여 진행함에 따라 심층적인 비교에 있어 제한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대학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다양한 내용들을 준거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공식적인 교육과정만이 아닌 대학 내의 연구열정과 풍토, 구성원의 가치관과 노력 등과 같은 잠재적인 교육과정 요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 References

- [1] W. G. Kang, "A Study on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system to fulfill in future social environment", *The Journal Korean Society of Teacher Education*, Vol. 15, No 2, pp. 24-56, 1998.
- [2] J. U. Goo, *Education of Leading Countries in Eastern and Western*, Munumsa Publisher, 2003.
- [3] N. W. Kweon, "A Curriculum Analysis of comprehensive teachers' training colleg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stitute of curriculum*, Vol. 3, No 1, pp. 2-20, 2004.
- [4] D. H. Kim, "A Study on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Curriculum at Teacher's College", *The Journal of Korea Education*, Vol. 32, No 31, pp. 217-246, 2005.
- [5] S. H. Kim, *A Comparative Study on Policy of Teacher and Teaching Profession Subject of University student*, MS Thesi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0.
- [6] C. U. Park, "A Comparative Study on Curriculum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Education University", *The Journal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lementary Education*, Vol 15, No 27, pp. 263-288, 2002.
- [7] S. I. Park, "China Teacher Education 's Development and Reformi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stitute of curriculum*, Vol. 2, No 2, pp. 22-39, 2007.
- [8] Law. E. H, Galton. M, Sally. Wai-Yan. Wan, "Developing curriculum leadership in schools: Hong Kong perspectives", *The Journal of Asia-Pacific Teacher Education*, Vol 35, No 12, pp. 143-159, 2007.  
DOI: <http://dx.doi.org/10.1080/13598660701268569>
- [9] Fuquan. H, "Curriculum reform in contemporary China: Seven goals and six strategies",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Vol 36, No 1, pp. 101-115, 2004.  
DOI: <http://dx.doi.org/10.1080/002202703200004742000174126>
- [10] Ministry of Education in China, "*The Ministry of Education on Improving Teaching Quality of Higher Vocational Education*", 2006.
- [11]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 *College Bulletin*, 2011.
- [12]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University Bulletin*, 2011.
- [13] Hunam Normal University, *University Bulletin*, 2011
- [14] Yanbian University, *University Bulletin*, 2011.
- [15] Doll. R. C, *Curriculum improvement*, Allyn & Bacon Publisher, 2008.
- [16] D. S. Jo, "A Study on Function and Capability Strengthening Plan of Comprehensive Teachers' Training College",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23, No 22. pp. 399-419, 2005.

- [17] J. Wang, "The Teacher Education in China: Its Status Quo, Problems and Tendency", *Teacher Education Research*, Vol 16, No. 5, pp. 106-127, 2004.
- [18] W. Jiang, X. Zhang, "The Developing Direction of China's Teacher Training", *The Journal of Hubei University of Education*, Vol 2, No. 3, pp. 54-62, 2004.
- [19] C. Tan, "Establishing a First-class Teacher Educational system on the Basis of China's Conditions",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Vol 22, No. 2, pp. 22-55, 2000.
- [20] Ministry of Education in China, "Higher Vocational Colleges Personnel Training Evaluation Work Program", 2008.
- [21] Ministry of Education in China, "Outline of the National Medium and Long-term Talent Developments Plan (2010-2020)", 2010.
- [22] Doll. R. C, *Curriculum improvement*, Allyn & Bacon Publisher, 2008.
- [23] Ministry of Education in China, "General Indicators of Basic Conditions for Running Colleges and Universities", 2004.
- [24] Glatthorn. A. A, *Developing a quality curriculum*, Alexandria Virginia Publisher, 1994.
- [25] B. S. Gwak, *Curriculum explanation*, Kyoyookgwahaksa Publisher, 1987.
- [26] J. C. Kim, *Curriculum & Evaluation*, Kyoyookgwahaksa Publisher, 2000.

**이 재 철(Jae-cheol Lee)**

[정회원]



- 2006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교육학석사)
- 2012년 8월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교육학박사)
- 2010년 9월 ~ 현재 : 교육학 강사
- 2000년 9월 ~ 현재 : 중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관심분야>

학교교육과정, 학습모형, 효과적인 수업설계

**박 정 환(Jung-hwan Park)**

[정회원]



- 1992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문학사)
- 1994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문학석사)
- 2001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교육방법, 교육공학, ICT, 교육공학, Smart-Education

**박 성 일(Sung-il Park)**

[정회원]



- 1993년 7월 : 중국 연변대학교 물리학부 (문학사)
- 1996년 6월 : 중국 연변대학교 교육학과 (문학석사)
- 2002년 6월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공학 (교육학박사)
- 2005년 9월 ~ 현재 : 현재 중국 호남사범대학교 교육공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ICT, 정보화교육, 교육공학